



영화인쇄(주), 고모리 대국전 5색 GL-540 도입 영원한 '영화맨' 과 함께 파주에서 제2의 도약 다짐

영화인쇄(주)(대표이사 노철구)가 지난 4월 파주시 조리읍으로 동지를 옮긴 이후 고모리의 대국전 5색 GL-540 모델을 도입, 제2의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기존 화성공장에서부터 동고동락하던 임직원 모두가 영원한 '영화맨'을 자처하며, 파주로 이사하거나 기숙사 생활을 선택하면서 영화인쇄의 밝은 미래를 함께 개척하고 있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강한 책임감으로 이룬 바위 같은 신뢰

영화인쇄는 프리벨의 협력사로서 회사 설립 후 26년 동안 줄곧 프리벨의 작업을 도맡아 하고 있다. 파주시로 이사 오기 전에는 화성에 공장이 있었는데, 시공간적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파주출판단지와의 가까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프리벨의 요청에 따라 지금의 공장으로 이전하게 됐다. 다행히 특별히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인쇄 임직원 모두가 동행해 줌으로써 작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영화인쇄 대부분의 임직원은 근속년수가 20년에 달하는 베테랑들이다.

영화인쇄가 프리벨과 끈끈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납품시간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을 만큼 유지해온 굳은 신뢰가 바탕이 됐다. 바쁠 때는 사장부터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5일이라도 밤을 꼬박 새워가며 약속한 날짜에 주문량을 꼭 채우고야 마는 책임감이 바위 같은 믿음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생산성 향상 만큼 새로운 작업 발굴

노철구 대표이사는 지난 8월 13일 개최한 오픈하우스에서 "인

쇄와 처음 인연을 맺었던 중앙대학교출판국에서부터 최고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프리벨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수십 년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데, 앞으로도 최고의 협력사로서 남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영화인쇄 임직원 모두가 한뜻으로 이해하고 도와주고 있어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모리 대국전 5색 GL-540 모델의 도입 동기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높은 생산성과 뛰어난 작업 편의성 때문에 고모리의 대국전 5색 인쇄기를 도입하게 됐다.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트렌드에 대비하려는 의도도 있었다"면서 "예전에는 프리벨 작업만 했었는데 생산력이 향상된 만큼 새로운 작업도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영화인쇄가 이번에 도입한 인쇄기는 대국전 5색 GL-540 모델로, 전자동 판교환장치, 고모리 하이퍼 시스템 AI버전 및 전자동 세척장치 등이 갖춰진 고모리의 베스트셀러 모델이다. 이 시스템은 작업전환을 최단시간에 이룰 수 있도록 전자동으로 제어해 작업자의 인위적인 조작에서 발생하는 시간 및 자재를 절감할 수 있다. ↻